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4년 겨울 제70권 4호

서발칸 지역에 전하는
화해의 복음, 성경



(재)대한성서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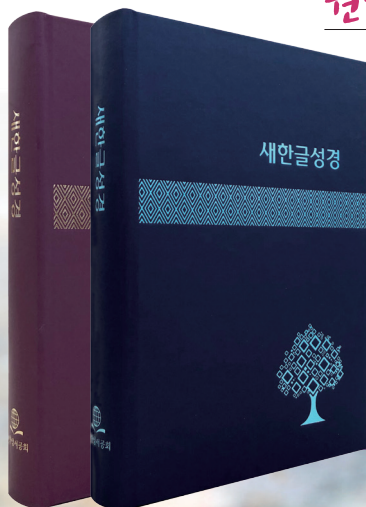
새한글성경

Ch

카톡에서 대한성서공회 채널 추가하세요 +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출간**

원문에 더 가깝게, 읽기는 더 쉽게



원문의 구조, 어원, 어순을 살린 번역
문학 장르에 따른 다채로운 문체

쉽고 간결한 문장
다양한 높임법
새롭고 참신한 어휘
정확하고 명료한 표현

교회 전통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감감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요.”
-시편 23장 4절 중에서-

★ **공인역 성경** : 대한성서공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발간한 성경으로, 12년 동안 각 교단의
성서학자 36명과 국어학자 3명이 여러 단계를 거쳐 번역을 완료한 성경.

(재)대한성서공회
문의 반포부 02-2103-8847

성서한국

2024 겨울 제70권 4호

- 02 **포토에세이**
저에게 성경이 생겼다는 것은 멋진 일이에요
- 04 **2024 성서 사업 보고**
- 06 **커버스토리**
서발칸 지역에 전하는 화해의 복음, 성경
- 10 **2024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70개 나라에 840,517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 12 **현장 이야기**
멕시코 출(Ch'ol) 부족의 영적 부흥을 꿈꾸며,
출어 첫 해설 성경 봉헌식
- 15 **레바논을 위한 기도**
레바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16 **성경을 전하다**
성경 한 권으로 시작되는 축제,
우간다, 르완다 성경 보급 현장
- 18 **『새한글성경』**
『새한글성경』의 국어학적 특성과 의의 (1)
- 21 **튀르키예 성경 후원 3차 보고**
튀르키예에 3차로 성경을 보내다!
- 22 **후원 이야기**
- 24 **대한성서공회 소식**
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티피레스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집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루파(Roopa)

저에게 성경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인도의 신분제 카스트 제도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신분의 영향을 받으며
신분 간 큰 빈부 격차가 나타납니다.
인도성서공회는 낮은 신분에 속해
가난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선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구할 수 없어 항상 집에 계시고,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셔요.
저는 보통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지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을 받아 읽게 되었어요.
성경 속 예수님께서 앞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제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싶어요.
저에게 성경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 루파(Roopa)

국내외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내외 성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동참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성서 보급 및 『새한글성경』 발간

금년에는 314,880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인 『새한글성경』을 12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성경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이들과 교회학교를 위한 공인역 성경으로, 지난 12년 동안 각 교단의 성서학자 36명과 국어학자 3명이 여러 단계를 거쳐 번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새한글성경』이 각 교단의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공과와 예배에서 사용되어, 널리 읽힐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에는 102개 나라에 194개 언어로 지난해보다 634,225부가 증가한 4,233,421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세계 성서 수출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본 공회는 품질 좋은 성서를 보급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와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 성서공회들은 재원이 부족하여 성서 제작 주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어권(18개), 프랑스어권(6개) 성서공회 대표들을 비롯하여 일본, 말라위, 가나 성서공회 총무들이 방한하여 성서 출판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8월에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미주지역 성서 출판회의에 참석하여 스페인어 성경의 공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에콰도르성서공회를 방문하여 성서 출판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에콰도르성서공회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본 공회가 에콰도르에서의 성서 사업이 재개되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9월에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이사장 일레인 던컨과 사무총무 더크 게버스가 본 공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은 본 공회가 지원받던 성서공회에서 지원하는 성서공회로 성장하여 세계 성서 운동에 기여하고 있음에 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10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펠로십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400여 명이 참석하여 세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헌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 각 성서공회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각 성서공회들의 필요와 자원을 함께 나누어 협력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자매 성서공회들의 성서 보급 요청에 대하여 성서 기증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보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및 이를 위한 모금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 운동을 위해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개 회원 성서공회에 840,517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국내외 성서 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총 55억 8천여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서울광영교회에서 1억 7천2백만 원을 후원하여 5개 나라에 성경을 보냈습니다. 서울광영교회는 지난 4년 동안 총 37개 나라에 성경을 후원하였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진행했던 미얀마 소수민족 성경인 루투버 구약(여의도순복음교회 후원), 팔람어 신약(도림교회 후원), 테딩어 신약(영락교회 후원)의 번역이 완료되어 제작한 성경을 기증하였습니다. 현재 자이와어 구약(진남제일교회, 남선교회중부연합회 후원) 번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개정 작업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 위원회”가 16개 교단에서 추천한 위원들과 국어 위원들로 구성되어,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개정 초안 작업이 마무리되어 개정 검토 작업을 43% 진행하였고, 구약의 경우에는 개정 초안 작업이 68%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개역 성경의 문체를 유지하되, 문장 부호를 전체적으로 부여하면서 철저히 원문에 기초하여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로부터 들어온 개정 제안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42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24 성서 사업 보고



국내 성서 보급

314,880부의
성서 보급



해외 성서 보급

102개 나라에 194개
언어로 4,233,421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



해외 성서 기증

70개 나라에
840,517부의 성서 기증



후원 헌금

지난해와 비슷한
55억 8천여만 원

서발칸 지역에 전하는 화해의 복음, 성경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는 발칸반도는 민족과 종교의 차이로 인해 수많은 전쟁을 겪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칸반도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를 죽음에 내모는 잔혹한 일들을 수십 년에 걸쳐 경험했습니다.

발칸반도에 속한 나라들은 고대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위치에서 다양한 민족, 언어, 문화, 종교가 섞인 채 살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6개 나라는 1992년까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연방에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민족주의가 강조되며 이들 연방 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1991년부터는 각 나라들이 연방에서 독립하며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코소보가 세르비아에서 독립을 주장하며 그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차별과 분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칸반도에서 서부에 있는 나라의 성서교회들은 '서발칸 지역 성서교회'라는 연합을 만들어서 '민족 간 갈등, 이슬람의 확장, 무신론과 세속화' 등 현재 발칸반도가 가진 공통의 과제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

유고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서발칸 지역은 독립 전쟁과 같은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1990년대 내내 일어난 이 전쟁들로 유고연방은 서서히 해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족 간의 갈등이



서발칸 지역 성서교회 연합이 사역하는 나라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트라우마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발칸 지역 성서교회들은 협력을 통해 성경 공부 자료를 함께 개발하고, 성경 읽기 모임을 개최하며 나라별 분쟁과 상처를 성경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기반 회복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치유의 권능으로 제 트라우마와 고통을 만져 주셨습니다.”

- 타차나(Tachyana)/슬로베니아



▲ 성경을 보급하는 알바니아성서교회

이슬람의 확장

서발칸 지역은 14세기부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이슬람 우호 정책으로 현재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발칸 지역은 이슬람 인종 청소와 학살이 발생한 보스니아, 코소보 전쟁 등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쌓여 있습니다.

서발칸 지역 성서교회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접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에 성경을 보급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무슬림 대상 선교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소책자로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화해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 교회 성경 읽기 모임(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저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대표적인 이슬람 도시입니다. 어느 날, 저와 아버지는 교회 모임에 초대받았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 이즈미르(Izmir)/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산주의와 세속화

유고연방의 공산주의와 무신론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서발칸 지역은 오늘날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구 공산주의 국가이고, 지금은 소비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

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얕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 슬로베니아성서공회 총무

“알바니아는 1967년 헌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무신론 국가로 선언하며, 모든 교회와 다른 종교가 박해를 받았고, 성직자와 이슬람 지도자는 투옥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알바니아인들은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도 하며, 특히 과거 공산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바니아는 공산주의의 박해로 인해 교회가 수십년 동안 완전히 폐쇄되기도 하였습니다. 90년대 초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왔고, 지금은 처음부터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알바니아성서공회 총무

하지만 서발칸 지역 성서공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보급하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가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나라에서 자랐기

에 마음을 열고 성경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 성경은 가장 큰 도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 마일로스(Milos)/세르비아

“저는 공산주의 정권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성경 읽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후로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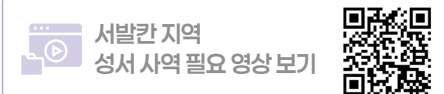
- 밀자나(Mirjana)/세르비아

서발칸 지역 성서공회들은 역사적 아픔을 딛고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민족을 넘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크로아티아 사람

어서 사랑과 평화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지역에 공통되는 문제인 민족 간의 분쟁, 이슬람화, 공산주의와 세속화로 상처 받고 메마른 서발칸 지역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환경으로 갈등을 겪어 온 서발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될 서발칸 지역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서발칸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70개 나라에 840,517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4.10.31. 기준)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하신 성경은 전 세계 미자립
성서공회들의 성경 기증 프로그램 및 성경 보급 사업 지원에
사용됩니다.





멕시코 출(Ch'에) 부족의 영적 부흥을 꿈꾸며 출어 첫 해설 성경 봉헌식

▲ 2024년 4월 20일 열린 멕시코 출어 첫 해설 성경 봉헌식

수많은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멕시코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다양한 언어를 가진 나라입니다. 멕시코에는 인구의 8%에 이르는 1천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68개의 원주민 그룹이 존재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부족어는 약 364개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원주민은 농업에 종사하며, 70%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또는 그 이하로 가족을 부양하는 빈곤층입니다.

멕시코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을 위한 성경 번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멕시코성서공회는 7개 부족어로 성경 번역을 완료했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으로 122개 부족어로 신약전서가 번역되었습니다.

출(Ch'ol) 부족은 멕시코 치아파스(Chiapas) 주 북부에 사는 원주민으로 총인구 25만여 명

중 가톨릭이 53%, 개신교가 32%이며, 출 부족의 반 이상은 부족어인 출어만 이해합니다. 출 부족은 1990년 출어로 된 첫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5천여 부 제작하여 배포된 성경을 읽고, 출 부족 교회는 신앙의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의 개정이 필요해졌고, 개정과 더불어 더 많은 성경 후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멕시코성서공회는 출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으로 번역팀을 구성하고, 소수민족 성경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해설 성경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신약을 봉헌하였으며 15년 만에 그 대장정이 마무리되어 2024년 4월 20일 멕시코 치아파스 팔렌케(Palenque) 지역에서 출어 첫 해설 성경 봉헌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출어 첫 해설 성경 번역자
알베르토 디아즈(Alberto Diaz)

“출어 성경을 받으며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성경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출어 성경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출어 첫 해설 성경 봉헌식은 이 성경이 있기까지 협력한 단체와 출 부족 5천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4시간여 진행된 봉헌 예배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등 모든 순서가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봉헌된 성경 1만 4천 권의 제작과 후원은 대한성서공회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의 협력으로 가능하였습니다.

한국교회와 후원자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초청받은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은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

“저희에게 출 부족은 정말 특별합니다. 10년 전, 멕시코성서공회를 통해 출어 신약 제작의 필요를 알게 되었고 7천 부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기도와 헌신의 마지막을 성경 제작과 후원으로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출어 첫 해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가는 영적인 여정이 나날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출어 첫 해설 성경 봉헌식은 원주민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데에 있어서

▼ 봉헌식에 참석한 출어 첫 해설 성경 번역자들





▲ 봉헌식에 참석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더크 게버스(Dirk Gevers) 사무총무,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 멕시코성서공회 훌리오 스플링커(Julio Splinker) 총무(왼쪽부터)

도 그 의미가 큰 자리였습니다. 이 출어 첫 해 설 성경이 출 부족 성도, 가정, 교회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영적인 양식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영혼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길 기도합니다. 🌍



▲ 출 부족 다음 세대인 세시아 크루즈(Cesia Cruz)

출 부족 다음 세대 세시아 크루즈(Cesia Cruz)

“오늘 출어 성경을 받은 이 감동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들과 출 부족 아이들에게 이 성경은 보물입니다. 이 성경은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앞으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많은 분이 수고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 출 부족 청년과 어린이를 대신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전해진 출어 첫 해설 성경 봉헌식 현장의 감동,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레바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공습으로 폐허가 된 도시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레바논은 최근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후 발생한 공습과 유혈 분쟁은 레바논까지 확대되며 레바논도 전쟁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레바논에는 주변 국가에서 전쟁과 여러 박해를 피해 떠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때 중동의 피난처였던 레바논은 이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또다시 난민이 되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레바논성서공회는 전쟁 중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기독교 인구가 약 40%로 주변 중동 국가에 비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레바논성서공회는 기독

교인들이 중동 문화권에서 받는 차별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합니다. 또한, 전쟁과 박해를 피해 레바논으로 피난 온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의지를 다집니다. 종교적 핍박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이르게 합니다. 레바논에서는 전쟁 가운데도 성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레바논에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

기도 제목 🙏

1. 레바논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레바논을 떠나 난민이 된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으로 시작되는 축제, 우간다, 르완다 성경 보급 현장

▲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우간다 카세세(Kasese) 농촌 마을 성도

아프리카 내륙 중앙에 위치한 우간다와 르완다. 금년 7월, 이 두 나라의 성경 보급 현장에 성경 보내기 사역을 7년째 후원하는 김영례 권사와 동행하였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우간다. 우간다는 인구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지만 수십 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나라 곳곳에 상처가 만연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고에 허덕여 자신의 힘으로는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 보급팀은 대규모 차 재배 농장이 있는 포트포털(Fort Portal)과 카세세(Kasese) 지역 농촌 마을에 방문하여 성경을 무료로 보급하였습니다. 성경을 한 권 한 권 나눠주는 순간, 우간다 사람들은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무릎을 꿇으며 성경을 받고 환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김영례 권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집마다 성경이 흔한데, 성경 한 권을 무릎 꿇고 받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 김영례 권사



▲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받는 사람들

성경이 없는 이웃과 함께 읽겠다는 성도부터, 성경이 있어서 목회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회자까지, 성경이 주는 환희와 감

동이 가득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성경 보급팀은 다음 사역지인 르완다로 향했습니다.

르완다는 1994년 국가 내에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갈등으로 100만여 명이 희생된 대학살의 민족적 상처를 여전히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절실한 이곳에 한국교회와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전해진 킨야르완다어 성경을 가지고 르완다 산간 키니냐(Kinyinya) 지역과 비움바(Byumba) 지역 교회에 방문하여 성경 보급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은 성경이 없어 빈손으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설교 말씀을 종이에 받아쓰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김영례 권사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포옹하며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받은 성도들은 “할렐루야!”로 응답하며 환호했습니다. 르완다 한 목회자는 “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목회자는 “대학살의 상처가 너무 커 성경이 없었다면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성경이

르완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간증하였습니다.

“사역 현장을 돌아보고 나니,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은퇴하고도 할 사명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 성경을 보내는 일입니다.”
- 김영례 권사

부군 되시는故 왕기일 장로의 유지를 받들어 2018년부터 태평양 작은 섬나라인 마이크로네시아를 시작으로 매년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후원하는 김영례 권사는, 성경 한 권을 존경과 기쁨으로 받아 들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며 한 권의 선교사를 보내는 이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중보를 다짐하였습니다. 🌍



▲ 성경을 받은 르완다 비움바(Byumba) 지역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후원으로 우간다와 르완다에 보내진 성경을 받은 사람들의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그 환희의 현장을 아래 QR을 통해 만나보세요.



『새한글성경』의 국어학적 특성과 의의 (1)

민현식(『새한글성경』 국어자문위원, 거례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오늘날 급변하는 스마트폰 시대, 인공지능(AI) 시대는 우리의 언어생활도 ‘짧고, 쉽고, 빠르’ 정보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성경 원문의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짧은 문장, 쉬운 어휘, 빠른 읽기’의 종이 성경을 제공하고 ‘내 손 안에’ 풍부한 해설과 시청각 자료를 탑재한 전자 매체용 성경을 제작 및 공급할 필요가 있어 대한성서공회는 2012년부터 다음 세대 성경으로 『새한글성경』을 준비해 왔고 3년 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내어 그 의의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2021년 <성서한국> 가을호, 제67권 3호). 2024년 12월, 이번에 구약을 완역 합본한 종이 성경 『새한글성경』이 나와 구약을 중심으로 국어학적 특성과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새한글성경』은 다음 세대를 위해 완전히 새롭게 번역한 21세기형 성경입니다.

기존 성경의 굳어진 표현에 얽매이지 않고 원문의 뜻과 성경 갈래(장르)의 특성을 살리

면서 쉽고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찾아 전면적으로 새롭게 번역하였습니다. 고전체 종결 어미 ‘-도다, ‘-(니/더)라’체 대신 현대체 ‘-(는/있)다’체로 통일하였고 어휘 표현도 가급적 새로운 한국어의 단어를 찾아 한국어 표현의 세계를 넓혔습니다. 창세기 1:1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

『개역개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새한글』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의 ‘태초, 천지, 창조’를 『새한글성경』(2024)에서는 ‘처음, 하늘과 땅, 창조’로 하여 세 표현 중에 두 표현을 고유어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태초’는 ‘처음’으로 바뀌 생소하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처음에’의 뜻으로 풀면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1의 ‘처음’은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나오는 ‘처음’과 연계할 수 있다는 일관성도 있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새한글』 요한계시록 21장

1 또 나는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 버리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더는 없습니다.

6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샘에서 거저 마시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2) 『새한글성경』은 성경의 갈래(장르) 특성을 살려 번역하였습니다.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라는 다양한 갈래 특성을 보이는데 『개역개정』은 고전체의 하소서체와 하라체라는 두 문체만 보여 주었습니다. 시가서도 산문체로 번역되고, 서신서도 청자에 따른 대화

체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새한글성경』의 시편은 시가서의 특성을 살려 운문체를 살리려 하였고 나머지 갈래들도 문체 특성을 살려 번역하고자 하였습니다. 시편 1,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새한글』 시편 1장

1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

3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됩니다.

시편 2장

(사람에게 하는 말)

1 무슨 까닭으로 설쳐 대는가요, 민족들이?
백성들이 떠들어 대는가요, 헛되이?
...

(하나님의 말씀)

6 “바로 **나야**, 내 임금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사람에게 하는 말)

7 내가 널리 알립니다, 여호와가 확정하신 것을.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아들이야, 너는!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날았어.

8 나한테 **요청하렴.** 그러면 내가 **주마,**
민족들을 너의 몫으로,
너의 소유로 땅끝까지를.

9 너는 그들을 **깨뜨릴 거야,** 쇠막대기로.
진흙그릇처럼 그들을 부숴 버릴 거야.”

시편 1장은 하십시오체를 기본으로 해요체도 쓰고 도치의 표현도 사용하며 ‘시냇가’를 ‘물길 곁’으로 번역하는 등 기존 표현들과 달리 원문에 더욱 가깝고 다양한 한국어 표현들로 번역해 한국어 표현의 세계를 넓혔습니다. 시편 2장은 구어체(비격식체)의 해요체를 사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처럼 하십시오체를 쓰기도 하고, 대화체 기도의 부분은 ‘나야’, ‘날았어’, ‘깨뜨릴 거야’의 해체(반말), ‘요청하렴’, ‘주마’의 해라체로 다양한 높임법을 구사해 대화체 기도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3) 『새한글성경』은 더 쉬운 단어로 번역해 성경을 더 쉽게 잘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글 전용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기존 성경은 여전히 난해어가 많아 다음 도표처럼 일부 용어의 경우에는 쉬운 말로 풀고 필요 시 기존

용어를 ()에 병기해 연계하였습니다.

〈주요 용어의 변화〉

책장절	『새한글성경』
출 12:11	넘는명절(유월절)
출 12:8, 15	누룩없는빵(무교병), 누룩있는빵(유교병)
출 20:24	다태우는제물(번제물)
출 25:30	거룩한빵(진설병)
출 25:31	등불받침대
출 26:30, 31	천막, 나뭇막
출 26:33; 레 16:2; 민 10:33	증언상자, 상자(궤), 언약상자
출 26:33	거룩한곳(성소), 거룩거룩한곳(지성소)
출 29:14	죄없애는제물(속죄제물)
출 29:40	붓는제물(전제물)
출 29:41	곡식제물(소제물)

(4) 『새한글성경』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야기(스토리텔링)를 현대인의 간결한 언어생활에 맞추어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하였습니다.

현대인은 쉽고 짧고 빠르게 쓴 문장을 사용하는 통신 언어에 익숙하므로 가독성을 약화시키는 줄글체 성경을 탈피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장 길이를 가급적 1문장 최대 16어절 50자 이내로 간결화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보내지는 3차 발송분 〈튀르키예어 신약〉 10,800부

지난 8월,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3차 발송분 〈튀르키예어 신약〉 10,800부를 튀르키예에 보냈습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에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튀르키예 교회와 터키성서공회는 성경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본 공회는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아 튀르키예에 보급할 성경을 제작하였고, 지금까지 튀르키예에 3차례에 걸쳐 성경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튀르키예어 신약〉 15,873부가 2023년 5월 18일 발송되었고, 2차로 〈튀르키예어 신약〉 2,985부와 〈튀르키예어 성경〉 5,000부가 2023년 8월 17일 추가로 발송되었습니다. 이번 3차 발송까지 합하여 현재까지 튀르키예어 성서 총 34,658부가 튀르키예 사람들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교회와 협력하여 튀르키예에 성경 보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튀르키예는 지진 이후 성경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앞서 발송된 성경은 지역 교회를 통해 보급되고 있으며,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터키성서공회 총무는 “튀르키예 사람들은 다른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자신의 자녀를 데려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크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며 성경이 튀르키예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보내지는 성경을 통해 튀르키예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진 이후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영락교회 성도들

테딤 부족이 성경을 통해 복음화되기를

영락교회 - 미얀마 <테딤어 신약> 2,150부 기증

2024년 8월 14일, 영락교회(김운성 목사)의 후원으로 미얀마에 <테딤어 신약> 2,15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영락교회 선교부 조두형 목사는 “성경 번역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테딤 부족의 그 첫 길을 테딤어로 여는 데 저희 영락교회가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성서공회 코이 람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미얀마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보내시는 수많은 성경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테딤어 신약 번역자 파오리안망 목사는 영상 인사를 통해 “테딤어 신약의 제작이 완료되어 성

경이 입고되었고, 이제 말씀을 보급할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쁩니다.”라고 기쁨을 표했습니다.

테딤 부족은 미얀마 서쪽에 있는 친 지역 북쪽에 거주하며 인구는 약 15만여 명에 이릅니다. 테딤 부족에게는 1934년에 출간된 첫 신약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젊은 층은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영락교회는 6년 동안 테딤어 신약 개정의 번역부터 제작까지 후원하였습니다. 테딤어 신약 개정 작업은 2018년에 시작되어 6년 만인 2023년에 완료되었고, 금년 8월에 성경 제작이 완료되어 미얀마로 보내졌습니다.

미얀마 테딤 부족에게 전해지는 <테딤어 신약> 2,150부는 테딤 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도울 것이며, 테딤 부족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기증하는 <아테소서 성경> 앞 김영례 권사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간다를 세웁니다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 - 우간다 <아테소서 성경> 6,300부 기증

2024년 9월 27일, 김영례 권사(동신교회), 왕보람 대표의 후원으로 우간다에 <아테소서 성경> 6,3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김영례 권사 가정은故 왕기일 장로의 유지를 따라 7년째 해외 성경 보내기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번 우간다까지 8개 나라에 총 40,822부의 성경을 후원했습니다.

우간다성서공회 세루마가 피터 룸부예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성경을 향한 갈망이 큰 우간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받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희 우간다 공동체는 권사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영례 권사는 “지금까지 8개 나라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간다 땅을 밟으면서 우간다 사람들이 성경 한 권의 귀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경을 눈물을 흘리면서 받을 때, 우

간다를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우간다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내전으로 나라가 불안정해지며, 많은 사람들은 난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토속신앙에 빠지는 등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후원하는 <아테소서 성경> 6,300부는 내전의 피해로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 동안 회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방법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www.bskorea.or.kr) 접속

① 성경후원 → 나의 후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클릭**

② 마이페이지 → 이름, 휴대전화번호(인증번호 받기) → 인증번호 입력 후 **로그인** **클릭**

③ 좌측 메뉴 **기부금영수증 신청** **클릭** → 개인정보 확인 후 **저장하기** **클릭**
*정확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를 꼭 확인해주세요!

④ 신청 완료(개인정보를 저장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면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마이페이지 재접속 후 메뉴 기부금영수증 → **조회하기** **클릭** 후 출력 가능합니다.

※ 발급 기관 증빙 서류도 다운로드 받아 함께 사용해 주세요.

오프라인 발급 및 문의

오프라인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080-374-3061 (수신자 부담)

꼭 읽어주세요!

- 2024년도 기부금영수증은 2025년 1월 5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이전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 오프라인으로 기발급 받으신 경우 온라인으로 중복 발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 공제는 '종교단체 기부금(코드41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체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12월 8일(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복음의 빛, 우리가 전할 성경

초기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의 불씨를 이어가고자
‘백만명구령운동’을 펼치며 마가복음 70만 부를 보급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경을 구할 수 없었던 당시
서구 교회의 성서 지원은 전도 운동의 큰 힘이 되었고
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성경을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은혜,
자신의 힘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을 기억하며
성경으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마가복음을 배포하며 10일간
180명을 전도한 목포 학생들